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Adolescents'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on Mobile SNS

정여진(Yeojin Jeong)¹, 손서희(Seohee Son)^{2*}

¹Department of Family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individual and microsystem variables includ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affecti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mobile social networking site (SNS) cyberbullying based on the human ecological perspective. Data came from 344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d with both their parent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dolescents' characteristic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were associated with their experiences of mobile SNS cyberbully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od relationships with parents could be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to reduce mobile SNS cyberbullying. However, adolescents' characteristics including aggression, depression, and delinquent pee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olescents' experiences of mobile SNS cyberbullying. This study highlights that various environments are closely related to adolescent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가해(offending), 사이버 언어폭력(cyber-bullying), 피해(victimization), 청소년(adolescent), SNS(social network services)

I. 서론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나 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같은 일탈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및 조치 현황(Ministry of Education, 2016)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2012년 2만 4,70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19.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사이버 폭력 건수는 900건에서 1,462건으로 3년 사이 62% 증가하였다. 사이버 폭력 피해는 전체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9.1%를 차지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장소로 사이버 공간을 응답한 학생은 5.5%로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응답 중 발생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또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이 34%를 차지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2014)의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로 201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Seohee Son,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gpa-ro 47-gill 100, Yongsan-gu, Seoul, Korea, 04310. Tel: +82-2-2077-7902, E-mail: sson@sm.ac.kr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사이버 폭력을 응답한 학생이 7.6%를 차지하였으며, 11.5%의 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 행위와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H. Shim, Y. Han, B. Park, & N. Park, 2014). 사이버 폭력의 피해 유형은 크게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프라이버시 침해 및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사이버 언어폭력인 사이버 모욕을 통한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가 가장 심각하였다(D. Sung, D. Kim, Y. Lee, & S. Lim, 2006).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외부에 드러나기 쉬운 형태인 반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은 괴롭힘을 당한 증거가 스마트폰에만 담겨 있어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해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가해자와의 접촉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괴로움이 덜했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달리, 사이버 언어폭력은 휴대이동성이 특징인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면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Electronic Newspaper, 2011). 2015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에 따르면, 여학생과 비교해 남학생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높았으며,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폭력 피해 잠재성이 높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이버 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 Patchin and S. Hinduja(2010)는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한 학생이 피해를 적게 경험했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자살생각 및 시도(S. Hinduja & J. Patchin, 2010), 우울(B. M. Tynes, A. Rose, & D. Williams, 2010)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아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이라는 점(M. Son, 2013)과 어린 시절 경험한 언어폭력이 성인기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Brain, 2012)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위험이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사이버 집단

따돌림 실태조사(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욕설, 비방, 왕따 등의 폭력을 행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소외감과 불안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방폭, 카톡 감옥, 떼카¹⁾ 등의 신종 사이버 폭력이 등장하면서 SNS 사이버 언어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MoneyToday, 2016). 이처럼 청소년의 모바일 SNS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폭력 연구에 있어서 모바일 SNS를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청소년은 그들의 발달에 있어 가족과 학교, 친구집단,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상호작용 한다(S. Hinduja & J. Patchin, 2013). 다수의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있어 청소년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건강하지 못한 가정환경을 학교폭력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C. Kim & K. Rim, 2010; Y. Park, 2013). 특히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있어 가족의 역할은 결정적이므로(C. Kim & K. Rim, 2010),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관련해 청소년의 가족관련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은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학교에서 보냄에 따라 또래와 맺는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S. Kim, 2007; E. Park, 2014),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또래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2015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에서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부모대화, 부모애착, 학교만족, 교우관계가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과 비교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에 있어 청소년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인 가족과 친구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모바일 SNS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에 대한 연구는 2005년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왔지만, 모바일 SNS 언어폭력에 대한 현황 파악(S. Hinduja & J. Patchin, 2007; E. Oh, 2010),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SNS 이용실태나 인식조사(S. Ka, G. Kim, & J.

1) “방폭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전부 퇴장하면서 사이버 왕따를 시키는 방식으로 대화방 초대와 퇴장을 반복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함. 카톡 감옥은 피해 학생을 대화방에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 학생이 나갈 경우 끊임없이 초대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함. 떼카는 단체 대화방 등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뜻함.”

Lim, 2013; C. Lee, 201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언어폭력(M. Shin & M. Kang, 2013) 조사 등 실태조사 수준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모바일을 바탕으로 한 SNS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모바일의 휴대이동성으로 인해 기존의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언어폭력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연구되고 있다(S. Lee & E. Oh, 2012; N. Willard, 200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바일 SNS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그와 관련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개인의 유기체 특성과 청소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환경인 가족과 친구의 미시체계 특성이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생의 SNS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SNS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유기체 변수(성별,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및 미시체계 변수(가족, 친구 변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과 유기체 변수(성별,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및 미시체계 변수(가족, 친구 변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인간발달생태학적 관점과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청소년은 하나의 사회문화적 체계 속에서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주위 환경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K. Davis, D. Randall, A. Ambrose, & M. Orand, 2015). 그러므로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서 인간 발달을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Bronfenbrenner

의 인간발달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U. Bronfenbrenner(1979)는 유기체 발달에 있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근접환경인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시체계는 유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근접환경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환경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활동이나 역할, 대인관계 유형을 의미한다(J. Garbarino, 1982).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족, 친구, 학교, 이웃이 미시체계에 포함되며, 개인과 미시체계는 상호호혜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하는 일상 경험은 물론 성숙과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개인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이며, 이와 함께 친구와의 상호작용 또한 청소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에 있어 가족 및 친구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1)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혹은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다(S. Hinduja & J. Patchin, 2009).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집단 괴롭힘' 및 '왕따'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사이버 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N. Willard(2007)는 사이버 폭력을 비난, 괴롭힘, 명예훼손, 사칭, 폭로, 속임, 배제, 사이버 스토킹의 8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3)는 한국형 사이버 폭력을 '집단적 모욕형', '반복적 협박형', 'ID 도용 익명형', '콘텐츠·루머유포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집단적 모욕형'은 상대에 대한 사이버 비방, 악성댓글, 집단모욕 등을 포함하고, '반복적 협박형'은 사이버 상에서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유형이며, 'ID 도용 익명형'은 익명성을 이용한 가해나 타인의 ID 도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콘텐츠·루머유포형'은 콘텐츠 유포 및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을 포함한다.

SNS는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해 타인과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웹기반의 서비스(D. Boyd & N. Ellison, 2007)

이고, 모바일 SNS는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SNS가 이동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G. Nae, 2012). Y. Park(2013)은 'SNS 사이버 언어폭력'을 다수의 학생들이 SNS상에서 특정 학생을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과 누구든 그 욕설을 읽을 수 있고, 플래카메라나 엽기사진을 찍어 이를 SNS에 올려 다수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댓글로 욕하는 것, 더불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대해 한명의 왕따 피해자에게 다수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D. Infante, B. Riddle, C. Horvath, and S. Tumlin(1992)는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언어폭력을 뜻하며 성격공격, 능력공격, 배경공격, 생김새 공격, 저주, 희롱, 조롱, 헐박, 욕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청소년의 모바일 SNS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욕설, 놀림, 따돌림 등의 폭력 사건이 공공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 Lee, 2012). 이때 청소년폭력은 피해 및 가해가 따로 구분된 행위가 아니므로 피해 및 가해를 각각 파악해서는 청소년폭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S. Im & J. Lee, 2013). 선행연구(F. Mishna, M. Khoury-Kassabri, T. Gadalla, & J. Daciuk, 2012; S. Park, 2014)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에 있어 순수 가해나 순수 피해보다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중첩집단의 비율이 순수 가해나 순수 피해 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 Im & J. Lee, 2013). 이와 함께 J. Kim(2012)의 연구에서도 또래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 빈도와 피해 학생의 욕설행동 정도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들의 언어폭력이 피해 학생의 욕설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며 특히 SNS를 통한 폭력 행동을 복수나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 Park & H. Shim, 2015). 따라서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은 가해와 피해가 각각 분리된 경험이라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해와 피해 경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연구

청소년의 폭력경험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현상(J. Jeong, 2012)이기 때문에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유기체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및 친구 등 근접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기체 특성

개인 유기체 특성인 청소년의 연령, 성별,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J. Lee, 2011; N. Marees & F. Petermann, 2012; M. Shin & M. Kang, 2013) 등은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에 따르면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초등학교나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S. Park(2014) 또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와 가해 경험 모두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별과 사이버 언어폭력 간의 관계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Lee (2014)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가해 경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해 경험과 관련해 M. Shin and M. Kang(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사이버 언어폭력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내적 특성은 사이버 언어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감(D. Perry, S. Kusel, & L. Perry, 1988)과 자아존중감(J. Patchin & S. Hinduja, 2010)이 낮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E. Marla & C. Matthew, 2005).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 또한 높은 우울(P. Slee & K. Rigby, 1993)과 낮은 자아존중감(M. O'Moore & C. Kirkham, 2001)을 갖는다. 한편 청소년의 공격성은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S. Lee & E. Oh, 2012; H. Shin, 2005). 공격성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가해 행동을 많이 하였으며(N. Park, 201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Im & J. Lee, 2013). 특히 피해 학생은 자신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해 학생의 언어폭력 행동을 모방

함으로써 공격성을 내면화하고(A. Bandura, 1973), 또래 압력과 소외감을 피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언어폭력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Lashbrook, 2000).

2) 미시체계

(1) 가족관련 요인

가족의 언어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언어행동에 의해 가족의 언어 환경이 조성된다(W. Kim, 2011). 가족 내 부적절한 언어 환경은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행동에 중요한 원인이 되며(S. Kim, H. Cho, C. No, & H. Shin, 2010), 가족 내 언어 환경 중 특히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과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될 수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에 따르면, 청소년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나 가출충동을 덜 느끼고,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주양육자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 Jeong, 2013).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J. Kim, Y. Jang, and J. Min (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일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았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 경우에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Nam and S. Ok(200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은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언어폭력을 가할수록 학교에서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신체 및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J. Kim, 2012; Y. Lee & J. Bae, 2012).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도 관련되는데, 부모의 자녀를 향한 폭력적 태도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A. Lee & S. Yoo, 2011) 뿐 아니라 가해 및 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 Shin, 2005). 또한 T. Kim et al.(2012)은 청소년의 욕설과 같은 공격적 언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 중 하나로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꼽았다.

한편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된 요소로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C. Kim and K. Rim(2010)은 청소년 일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의 부족과 대화의 결여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즉 부모의 인터넷 통제 행위는 자녀의 사이버 불링 피해를 감소시키는 일종의 보호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 Cho, 2013). 반면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H. Cho & M. Yoon, 2010).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모 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모바일 SNS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에 있어서 부모관련 특성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2) 친구관련 요인

청소년기에는 학교내외에서 동년배와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는 청소년의 폭력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또래관계와 언어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의 선행연구는 친구집단도 가족과 학교와 같이 하나의 사회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구와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고(M. Shim, 2007),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 Kim, 2007).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친구와의 애착 관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 Lee, N. Yoo, H. Chu, and S. Lim(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고 친구도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분노나 억울함을 친구에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친구들의 지지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따돌림 연구(C. Lee & K. Kwak, 2000)에서도 따돌림 가해 집단의 급우 지지와 친한 친구 지지가 피해나 피해-가해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H. Shin(2005)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경험만 있는 집단의 경우 친구애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들로부터의 동조압력을 받으면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S. Ahn & K. Lee, 2014)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Y. Kim, 2007). 이처럼 또래와의 관계와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비행친구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S. Kim, 2007; S. Nam & N. Kweon, 2013), 이는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학교폭력의 가해 요인이 되는 것이다(H. Kim & H. Lee, 2001). 특히 친한 친구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또래들 간의 집단화가 강할수록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이 증가한다(M. Kim, 2007). 비행친구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중복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가 비행행동을 많이 하고 친구의 폭력을 목격할수록 학교폭력 중복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 Oh & Y. Ah, 2006). 또래관계와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축적된 것과 달리, 모바일 SNS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하였다. 총 39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무응답을 제외한 총 344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전 연구 참여 동의여부를 조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146명(42.4%), 여학생이 198명(57.6%)이었으며,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133명(38.7%), 2학년 110명(32.0%), 3학년 101명(29.3%)이 포함되었다.

2. 측정 도구

1) 청소년 관련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유기체 특성은 성별,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은

이분변수를 사용하여 '남자'일 경우 1, '여자'의 경우 2로 코딩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M.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나는 나에게 대해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81$). 공격성은 B. Jo and K. Im(2003)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공격성은 총 6문항으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85$).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G. Kim, J. Kim, & H. Won, 1983)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의 내용이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92$).

2) 가족관련 변수

가족관련 변수는 부모-자녀 대화시간,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부모의 감독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 '10분미만' 1, '10분 이상 ~ 30분미만' 2, '30분 이상 ~ 1시간미만' 3, '1시간 이상' 4로 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대화시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척도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4)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매리지는 않았다', '고함을 질렀다',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α

Table 1.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N=344)

Characteristic		n	%
Gender	Boy	146	42.4
	Girl	198	57.6
Grade	1-year	133	38.7
	2-year	110	32.0
	3-year	101	29.3

=.88). 부모의 감독은 M. Heo(2000)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활용해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총 3문항으로 '부모님께서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89$).

3) 친구관련 변수

친구 관련 변수는 또래애착과 비행친구 유무로 측정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Korea Youth Panel Survey(2011)가 G. Armsden and M.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하고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친 6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또래애착 척도는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등이고, 신뢰 문항은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92$). 비행친구 수는 E. Park(2014)이 사용한 4문항으로 '나의 친한 친구 중 술이나 담배를 피는 친구', '나의 친한 친구 중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친구'의 유무를 묻는 내용이다. 응답은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 '없다'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으며 4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4) 모바일 SNS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관련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은 피해와 가해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S. Hinduja and J. Patchin(2010)이 개발한 'Cyberbullying and Online Aggression Survey Instrument'를 연구진이 번역하고 국내 상황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모두 각각 8문항(욕설 및 비난, 모욕, 유언비어, 위협, 괴롭힘,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따돌림)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경험척도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나의 얼굴이나 신체 특징 등에 대해 놀린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Cronbach's $\alpha=.81$). 가해 경험척도는 '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 페이

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친구의 얼굴이나 신체 특징 등에 대해 놀린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Cronbach's $\alpha=.80$). 응답은 '전혀 없다' 0에서 '4번 이상' 3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문항의 산술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과 미시체계 특성인 가족과 친구 관련 변수, 종속변수인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기체 특성과 가족 및 친구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r=.59, p<.001$), 아버지의 언어폭력과 어머니의 언어폭력($r=.77, p<.001$), 아버지의 감독과 어머니의 감독($r=.61, p<.001$) 간의 상관계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련 변수를 아버지 변수와 어머니 변수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다중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분산팽창지수는 1.061~2.112로, 모두 4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및 주요 변수의 특성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을 욕설 및 비난, 모욕, 유언비어, 위협, 괴롭힘,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따돌림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 344명 중 모든 문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청소년이 50.6%($n=174$)를 차지하였

다. 반면, 전혀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49.4%($n=170$)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욕설 및 비난(41%)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모욕(18.6%), 유언비어(12.8%), 괴롭힘(12.2%), 개인정보유출(10.5%), 따돌림(9.3%), 위협(7.4%), 명예훼손(7.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한 번 이상의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5.1%($n=155$)를 차지하였으며, 가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은 54.9%($n=189$)로 나타났다.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경험과 유사하게 욕설 및 비난(41.6%)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모욕(17.1%), 괴롭힘(11.1%), 따돌림(7.8%), 유언비어(6.7%), 명예훼손(5.5%), 개인정보유출(5.2%), 위협(3.5%)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욕설 및 비난과 모욕, 괴롭힘, 명예훼손의 피해 및 가해 경험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피해나 가해 경험을 한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203명) 중 63%(128명)가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조사대상자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91점($SD=.49$)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

이었다. 공격성은 평균 2.04점($SD=.37$)으로 낮은 편이었다. 우울은 평균 1.86점($SD=.66$)으로 중간보다 낮은 편이었다. 부모 관련 변수 중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39%($n=134$)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상~30분미만이 24.7%($n=85$), 30분 이상~1시간미만이 20.9%($n=72$), 10분미만이 15.4%($n=5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62.2%($n=214$)로 가장 많았고, 30분 이상~1시간미만이 20.6%($n=71$), 10분 이상~30분미만이 13.1%($n=45$), 10분미만이 4.1%($n=14$)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아버지와의 대화시간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경험한 언어폭력을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은 평균 1.57점($SD=.32$, 4점 기준)이었으며 어머니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의 평균은 1.54점($SD=.32$)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부모의 감독 수준은 아버지의 감독은 평균 2.91($SD=.25$)이었으며, 어머니 감독의 평균은 3.31($SD=.20$)점으로 4점 기준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친구 관련 변수 중 또래에착은 평균 3.2점($SD=.3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비행친구는 0.56점($SD=1.1$)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Adolescents' Experiences of Mobile SNS Cyberbullying and Victimization

($N=344$)

Mobile SNS Cyberbully Victimization				Mobile SNS Cyberbullying			
Variable		<i>n</i>	%	Variable		<i>n</i>	%
Abuse	No	203	59.0	Abuse	No	201	58.4
	More than 1	141	41.0		Criticism	More than 1	143
Criticism	No	280	81.4	Insults		No	285
	More than 1	64	18.6		Rumors	More than 1	59
Insults	No	300	87.2	Rumors		No	321
	More than 1	44	12.8		Threats	More than 1	23
Rumors	No	319	92.6	Threats		No	332
	More than 1	25	7.4		Bullying	More than 1	12
Threats	No	302	87.8	Bullying		No	306
	More than 1	42	12.2		Defamation	More than 1	38
Bullying	No	320	93.0	Defamation		No	325
	More than 1	24	7.0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More than 1	19
Defamation	No	308	89.5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No	326
	More than 1	36	10.5		Outcast	More than 1	18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No	312	90.7	Outcast		No	317
	More than 1	32	9.3		Total	More than 1	27
Outcast	No	170	49.4	Total		No	189
	More than 1	174	50.6			More than 1	155

2.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관련 변수

1)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관련 변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된 유기체, 가족, 친구관련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아래<Table 4>와 같다. 가족변수 중 우선 아버지 관련 변수를 투입해 했을 경우, 독립변수 중 유기체 특성 변수에는 청소년의 공격성($\beta=.14, p<.05$), 우울

($\beta=.17, p<.05$), 가족변수에는 아버지의 언어폭력($\beta=.19, p<.001$), 친구관련 변수에는 비행친구 수($\beta=.17, p<.01$)가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총 분산의 19%를 설명하였다. 즉, 중학생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할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44)

Variables	M/n	SD/%
Individual variable		
Self-esteem (1-4)	2.91	.49
Aggression (1-4)	2.04	.37
Depression (1-4)	1.86	.66
Parent related variable		
Conversation hours with father		
Less than 10 minutes	53	15.4
10-30	85	24.7
30-60	72	20.9
Over 1 hour	134	39.0
Father's verbal abuse (1-4)	1.57	.32
Father's monitoring (1-4)	2.91	.253
Conversation hours with Mother		
Less than 10 minutes	14	4.1
10-30	45	13.1
30-60	71	20.6
Over 1 hour	214	62.2
Mother's verbal abuse (1-4)	1.54	.32
Mother's monitoring (1-4)	3.31	.20
Friend related variable		
Peer attachment (1-4)	3.2	.36
Delinquent peers (0-4)	.56	1.07

Table 4.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Adolescents' Mobile SNS Cyberbully Victimization

(N=344)

Variable	B	β	Variable	B	β
Individual variables			Individual variables		
Gender (Boy = 1)	-.09	-.01	Gender (Boy = 1)	-.08	-.01
Self-esteem	-.03	-.05	Self-esteem	-.02	-.04
Aggression	.11	.14*	Aggression	.12	.15*
Depression	.08	.17*	Depression	.08	.17*
Father related variables			Mother related variables		
Conversation hours	-.02	-.01	Conversation hours	-.03	-.01
Verbal abuse	.18	.19***	Verbal abuse	.17	.18***
Monitoring	.03	.02	Monitoring	-.04	-.03
Friend related variables			Friend related variables		
Peer attachment	.01	.02	Peer attachment	.03	.03
Delinquent peers	.48	.17*	Delinquent peers	.45	.16**
Number	-2.23		Number	-1.87	
F-value	8.95***		F-value	8.71***	
R ²	.19		R ²	.19	
adj R ²	.17		adj R ²	.17	

* $p < .05$, ** $p < .01$, *** $p < .001$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변수 중 어머니 관련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 중 유기체 특성 변수에는 공격성($\beta=.15, p<.05$), 우울($\beta=.17, p<.05$), 가족변수에는 어머니의 언어폭력($\beta=.18, p<.001$), 친구관련 변수에는 비행친구 수($\beta=.16, p<.01$)가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총 분산의 19%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험에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관련 변수

중학생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된 유기체, 가족, 친구관련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가족변수 중 아버지 관련 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독립변수 중 유기체 특성 변수에는 공격성($\beta=.23, p<.001$) 이, 가족변수에는 아버지의 언어폭력($\beta=.24, p<.001$)과 아버지의 감독($\beta=.12, p<.05$)이, 친구관련 변수에는 비행친구 수($\beta=.22, p<.001$)가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 총 분산의 22%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할수록, 아버지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변수 중 어머니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경우, 유기체 특성 중 공격성($\beta=.24, p<.001$)이, 가족변수에는 어머니와의 대화시간($\beta=-.12, p<.05$)과 어머니의 언어폭력($\beta=.19, p<.001$)이, 친구관련 변수에는 비행친구 수($\beta=.21, p<.001$)가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 총 분산의 20%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해 경험이 높았으며,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짧고, 어머니로부터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험할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가족 및 친구 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청소년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50.6%가 한번 이상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45.1%가 한번 이상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 및 비난, 모욕 등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나 가해 경험을 한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203명) 중 63%(128명)가 피해 및 가해

Table 5.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Adolescents' Mobile SNS Cyberbullying (N=344)

Variable	B	β	Variable	B	β
Individual variables			Individual variables		
Gender (Boy = 1)	-.58	-.09	Gender (Boy = 1)	-.50	-.08
Self-esteem	.04	.07	Self-esteem	.05	.08
Aggression	.18	.23***	Aggression	.19	.24***
Depression	.04	.09	Depression	.05	.11
Father related variables			Mother related variables		
Conversation hours	-.18	-.07	Conversation hours	-.41	-.12*
Verbal abuse	.22	.24***	Verbal abuse	.17	.19***
Monitoring	.14	.12*	Monitoring	.03	.02
Friend related variables			Friend related variables		
Peer attachment	.04	.05	Peer attachment	.06	.07
Delinquent peers	.60	.22***	Delinquent peers	.58	.21***
Number		-5.32	Number		-3.82
F-value		10.37***	F-value		9.17***
R ²		.22	R ²		.20
adj R ²		.20	adj R ²		.18

* $p < .05$, ** $p < .01$, *** $p < .001$

경험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의 증가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Ditch the Label, 2013;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 Ministry of Education, 2014; NoBullying, 2016)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 폭력의 한 유형인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통틀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은 욕설과 비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A. Go & S. Choi, 2016; C. Lee, 2012)와 일치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고(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많은 청소년들이 SNS에서의 욕설 등의 행동을 단순히 '재미'나 '장난' 정도로 생각(S. Park, 2014)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청소년 스스로와 가족 및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된 변수 중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가족 관련 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폭력, 친구 관련 변수인 비행친구 수가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은 아버지 관련 변수를 투입했을 경우와 어머니 관련 변수를 투입했을 경우 관련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 관련 변수 중 가족 변수가 아버지일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아버지의 언어폭력 정도, 아버지의 감독 수준, 비행친구 수가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변수가 어머니일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어머니의 언어폭력 정도, 비행친구 수가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모두가 높았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 피해 경험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Ditch the Label, 2013; J. Lee, 2011; E. Marla & C. Matthew, 2005; NoBullying, 2016; A. Palermi, R. Servidio, M. Bartolo, & A. Costabile, 2016; M. Shin & M. Kang, 2013)와 일치하였다.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의 경우 우울이 높을 뿐 아니라 자신을 가치 없이 여김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않으며(NoBullying, 2016), 가해자 또한 감정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NoBullying, 2014) 등 SNS 사이버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

할 때,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우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폭력경험 간의 관계를 보고했지만(J. Lee, 2011; M. O'Moore & C. Kirkham, 2001; J. Patchin & S. Hinduja, 2010),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 사이버 폭력 예방 사이트인 NoBullying(2016)은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요소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폭력 가해자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NoBullying, 20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가해 행동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oBullying, 2016). 이처럼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예방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함께 부모의 특성 또한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 Duncan(1999)은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한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Y. Lee & J. Bae, 2012; H. Shin, 2005). 즉, 부모의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폭력 중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정 내 언어폭력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대화 시간이 길수록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있어 부모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K. Miller, R. Forehand, & B. Kotchik, 2000; H. Nam & S. Ok, 2001; NoBullying, 2016)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J. Lee, 2011) 부모-자녀 간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한 교육이 부모교육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감독수준과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적응 위험을 낮춘다는 선행연구(Y. Cho, 2013)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모니터링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H. Cho & M. Yoon, 2010). 그러나 본 연구는 두 변인 간의 관계만을 파악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감독수준과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행 친구 수는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친구와 학교폭력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H. Kim & H. Lee, 2001; S. Kim, 2007; S. Nam & N. Kweon, 2013)의 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의 압력과 소외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보다 영향력이 있는 친구의 문제행동을 모방함으로(Lashbrook, 2000) 친구들의 부정적 행동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막말사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K. Jang, 2011)가 제안되었다. 이는 청소년 스스로가 욕설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인식이 친구들 사이에 확대되면 부정적 언어표현을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및 또래문화의 개선과 함께 비행청소년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이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근접환경인 부모 및 또래 관련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가 인터넷 활용에 대해 배우고 자녀와 함께 사이버 활동 계획을 짜보는 등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E. Robinson, 2013). 부모가 자녀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관리·감독하지만 부모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자녀가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

으며 가해와 피해 행동에 대한 개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Dehue, C. Bolman, & T. Völlink, 2008). 최근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녀의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부모교육에서 다루어 청소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강화(J. Snakenborg, R. Acker, & R. Gable, 2011)를 돕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 사이의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해 행동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된 법제 마련이 필요하며,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언어 활용교육과 인성교육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S. Hinduja & J. Patchin, 2013; NoBullying, 2016). 일부 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지침인 '사이버 폴'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실제 사이버 언어폭력 발생 시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NewsHankuk, 2016).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본 제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전반의 올바른 언어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같은 홍보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SNS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포함하였으나,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전체 중학생이 대상이 아닌 실제 피해와 가해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련된 한국판 척도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판 척도를 번안 및 수정해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만 진행된 상태(Y. Chung, H. Kim, & A. Jeon, 2016)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관련 한국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바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초점을 두고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관련된 변수

를 살펴보았다는 점,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 폭력 감소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hn, S., & Lee, K. (2014).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conformity on adolescents' SNS peer-bully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caused by SN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1(3), 51-67.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England: Prentice Hall.

Boyd, D., & Ellison, N.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16-31.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o, H., & Yoon, M.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59-285.

Cho, Y. (2013). The impact of cyber bullying victim experience and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117-142.

Chung, Y., Kim, H., & Jeon, A.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dolescents cyberbullying victimization scal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4(3), 95-116.

Davis, K., Randall, D. P., Ambrose, A., & Orand, M. (2015). 'I was bullied too': Stories of bullying and coping in an online commun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4), 357-375.

Dehue, F., Bolman, C., & Vollink, T. (2008). Cyberbullying: Youngsters' experiences and parental perce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17-223.

Ditch the Label. (2013). *Cyberbullying report: Key cyberbullying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ditchthelabel.org/research-papers/the-cyberbullying-survey-2013/>.

ditchthelabel.org/research-papers/the-cyberbullying-survey-2013/.

Duncan, R. D. (1999). Peer and sibling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intra-and extra familiar bully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71-886.

Electronic Newspaper. (2011). *SNS Internet bullying is growing, Rule is needed*. Retrieved from <http://www.etnews.com/201107250077>.

Garbarino, J. (1982).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social environment*. N.Y.: Aldine.

Go, A., & Choi, S. (2016). Study o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focusing on the empathy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4), 79-95.

Heo, M.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Hinduja, S., & Patchin, J. (2009).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CA: Corwin Press.

Hinduja, S., & Patchin, J. (2010). *School climate 2.0 - Cyberbullying and online aggression survey instrument 2010 version*. Thousand Oaks, CA: Sage.

Hinduja, S., & Patchin, J. (2013). Social influences on cyber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Youth Adolescence*, 42(5), 711-722.

iBrain. (2012). *Constant verbal violence has a devastating eff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mental health*. Retrieved from <http://kr.brainworld.com/BrainHealth/8565>.

Im, S., & Lee, J. (2013). Relationship between witness of inter-parents violence, self-esteem, victims and bullies of school violence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6, 27-45.

Infante, D., Riddle, B., Horvath, C., & Tumlin, S. (1992). Verbal aggressiveness: Message and reasons. *Communication Quarterly*, 40(1), 116-126.

Jang, K. (2011). *National survey on language use and language attitude in adolescent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o. 2011-01-38). Seoul, Korea: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Jeong, J. (2012). Ecological consideration of factors inducing school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 Counseling*, 11(3), 331-350.
- Jeong, S. (2013).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primary care giver-child talk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4), 31-55.
- Jo, B., & Im, K.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 Ka, S., Kim, G., & Lim, J. (2013). The effect of common use of sns on bullying and cyberbullying of the adolescent.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11(1), 159-208.
- Kim, C., & Rim, K. (2010).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solutions. *Law Research*, 38, 173-198.
- Kim, G., Kim, J., & Won, H. (1983). Symptom checklist-90-revision(SCL-90-R) in psychiatric outpatients. *Mental Health Research*, 1, 150-168.
- Kim, H., & Lee, H. (2001).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predicting elementary students' school bullying behaviors: On the bases of their gender and grad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5(1), 117-138.
- Kim, J. (2012). The effects of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linguistic environment on swearing amongst adolesc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3(4), 159-188.
- Kim, J., Jang, Y., & Min, J.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209-234.
- Kim, M. (2007). The effects of the school-system on middle school students' bullying. *Studies on Korea Youth*, 18(2), 287-314.
- Kim, S.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peers-related variables, and school viol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4(1), 101-126.
- Kim, S., Cho, H., No, C., & Shin, H. (2010). *Youth Welfare*. Seoul, Korea: Yangseowon.
- Kim, T., Chang, K., Kim, J., Lee, S., Lee, P., & Jeon, E. (2012). A study on korean teenager's language use and language attitude - Focus on expletive, curse, teenage slang and buzz-wor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 Literature*, 54, 43-93.
- Kim, Y. (200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eenagers' school violenc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eenagers' School Violence*, 4(1), 71-97.
- Kim, W. (2011). Multi-cultural society and commun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Modern and Multicultural Society*, 1(2), 160-175.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 *Survey on Cyber Violence in 2015* (A research report No. 2105-241). Seoul, Korea: Author.
- Lashbrook, J. T. (2000). Fitting in: Exploring the emotional dimension of adolescent peer pressure. *Adolescence*, 35(140), 747-757.
- Lee, A. (2014). *The Effects of Cyber Bullying Experience on Upper Elementary Students' Aggression, Verbal aggression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Lee, A., & Yoo, S. (2011). Influences of exposures to marital violence and child abuse on aggression of early adolescents: Findings from korean youth panel stud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225-245.
- Lee, C. (2012, April). *An analysis on adolescents' SNS utilization and prospect*. Presented at the symposiums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Korea.
- Lee, C., & Kwak, K. (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1), 65-80.
- Lee, E., Yoo, N., Chu, H., & Lim, S. (2014).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both school victimization and school bullying. *Studies on Korean Youth*, 25(3), 145-168.
- Lee, J. (2011). A study on dispositional mobile phone use motives, mobile phone addiction, and mobile phone verbal bullying of adolescents: With a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Media Sciences Research*, 11(2), 365-401.
- Lee, J. (2011).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cyberbullying prevention. Understanding and measures of cyberbullying*. Gyeonggi: Kyoyookbook.
- Lee, S., & Oh, E.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off-line bullying and cyber-bullying.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3(2), 137-161.
- Lee, Y., & Bae, J. (2012).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 on committing school violence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adolescent hostility. *Criminal Justice Services Research*, 2(1), 79-110.
- Marla, E. E., & Matthew, C. A. (2005).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0), 88-91.
- Marees, N. V., & Petermann, F. (2012). Cyberbullying: An increasing challenge for schoo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5), 467 - 476.
- Miller, K. S., Forehand, R., & Kotchik, B. A. (2000). Adolescent sexual behavior in two ethnic minority samples: The role of family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85-98.
- Ministry of Education. (2014). *Secondary field survey on school violence 2014*.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6). *School violence and action status*. Sejong: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Youth life in korea 2014* (A research report No. 2014-53). Seoul, Korea: Author.
-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 Daciuk, J. (2012).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4(1), 63-70.
- MoneyToday. (2016). *Frequent sound of a bell, large moan*. Retrieved fr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0417314218752&out-link=1>.
- Nae, G. (2012). *Research on the use of mobile sns user motivation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Nam, H., & Ok, S.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7), 37-58.
- Nam, S., & Kweon, N. (2013).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 offenders' of cyberbullying.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 10(3), 23-43.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Side effect of social media and direction of activation* (A research report No. 16). Seoul, Korea: Author.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December). *New types of cyberbullying and problems*. Seminar at School Violence 2.0 on Cyberbullying Problems and Solutions, Seoul, Korea.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VII: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A research report No. 09-R01). Seoul, Korea: Author.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November). *School cyberbullying conditions and measures*. Policy debate on measures to eradicate schools online violence, National Assembly Hall, Korea.
- NewsHankuk. (2016). *Do you know 'cyberpol' to prevent cyber language violence?*. Retrieved from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604151626131937.
- Nobullying. (2014). *How to handle bullying...*. Retrieved from <https://nobullying.com/how-to-handle-bullying/>.
- NoBullying. (2016). *Bullying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nobullying.com/bullying-statistics/>.
- Nobullying. (2016). *Children and social media bullying*. Retrieved from <https://nobullying.com/bullying-children-and-social-media/>.
- Oh, E. (2010). Cyber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dolescents Culture*, 15, 219-242.
- Oh, J., & Ah, Y. (2006). The factors effecting on experiencing both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Social Welfare Development*, 12(1), 79-100.
- O'Moore, M., & Kirkham, C. (2001).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27(4), 269-283.
- Palermi, A., Servidio, R., Bartolo, M., & Costabile, A. (2016). Cyberbullying and self-esteem: An Italian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9, 136 - 141.
- Park, E.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cological variables on school violence experience of earl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nam, Korea.
- Park, N. (2012). *The effects of the literatherapyp program utilizing the piture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S. (2014). *Research on adolescents' SNS cyberbullying*. *Institute of Criminology*, 130, 1-6.
- Park, S., & Shim, H. (2015). Examining the risk factors of cyber bullying with sns among korean youth. *Korean Academy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4(1), 155-185.
- Park, Y. (2013). A qualitative study on youth language

- life-style and school violenc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 Literature*, 2013(10), 167-186.
- Patchin, J. W., & Hinduja, S. (2010). Cyberbully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 614-621.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Robinson, E. (2013). *Parental involvement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Family Matters*, 92, 68-7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H. (2005). The effect of individual, family, and peer and school variable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er violence typ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2(4), 123-149
- Shim, H., Han, Y., Park, B., & Park, N. (2014). *A study on cyberbullying motivation and controlling factors of youth: Focusing on the mobile instant messenger (A research report No. 14-04)*. Chungbuk, Korea: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Shim, M. (2007). *Verification of social relation theory about juvenile delinquency using Korea youth panel surve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Shin, M., & Kang, M. (2013). Mixed research on cyber verbal viol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Child fund Korea Research Paper*, 2013(0), 69-112.
- Slee, P. T., &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 - 282.
- Snakenborg, J., Acker, R., & Gable, R. (2011).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to protect our children and youth. *Preventing School Failure*, 55(2), 88-95.
- Son, M. (2013). The research on domestic cyber violence. *Internet & Security Focus*, 3, 6-22.
- Sung, D., Kim, D., Lee, Y., & Lim, S. (2006). A study on the cyber-violence induction factors of teenagers: Focused on individual inclination, cyber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moral consciousness. *Cyber 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9, 79-129.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Youth Peace. (2014). *2013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Seoul, Korea: Edujikim.
- Tynes, B. M., Rose, A., & Williams, D. (201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nline Victimization Scale for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4(2), 1-15.
- Willard, N.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Illinois, CA: Research Press.

Received: November 15. 2016

Revised: March 15. 2017

Accepted: April 17. 2017